

현대차 전주공장 “마을발전에 쓰세요” 기금 쾌척

자매결연 완주용진면 두억마을 등 4곳에 각각 400만원씩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이 회사 소재지인 전북 완주군 관내 자매결연 농촌마을 4곳에 마을 발전기금 1,600만원을 쾌척했다.

전주공장은 29일 완주군수실에서 1사4촌 자매결연 마을인 완주군 용진면 두억마을과 운주면 용계원마을, 고산면 중앙마을, 경천면 죽림마을 등 네 개 마을 대표들과 만나 마을 당 4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마을발전기금 전달은 값 싼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과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들에 향토기업으로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3년 이틀 네 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 11일 상용엔진 실 직원 70여 명이 죽림마을에서 농번기 일손 돕기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터전이기 때문에 농촌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1사4촌 자매결연 마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07년부터 농촌사랑 운동에 본격 나서 전북 완주군 관내 오복마을 등 4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12개 농촌마을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원주=이중복기자



현대차 전주공장의 마을발전기금 전달은 값 싼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과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들에 향토기업으로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전주시의회 오정화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야·2등)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 의원은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0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역 발전 현안 문제를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부권 아동·청소년센터 및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제안, 공구도서관 시행 촉구, 이종호만화예술제 개최 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 의원은 “이번 수상이 전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하려는 뜻으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화 의원

/김영재기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150세대에 밀반찬 전달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인자)은 28일부터 29일 이틀간 관내 몸이 불편한 장애인 폐지수거어르신 독거노인 등 150세대에게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은 밀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해바라기 회원들은 반찬을 담은 가방을 동행 어려운 이웃 가정을 직접 찾아가 반찬을 전달하고 가사정리를 도와드리는데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조인자 해바라기회장은 “장마와 더위로 바깥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분들이 우리 해바라기봉사단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누군가 돌봐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완산동 직원, 6월출생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완산동(동장 김길례)에서는 29일 6월 생일을 맞이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전달했다.

완산동은 올해 특수사책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6월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케이크, 과일, 과자 등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길례 완산동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의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 이웃들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하다”며 “따뜻한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기에 완산동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부안경찰서 의경들 스포츠파커서 한마음체육대회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의경들의 체력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부안 스포츠파커서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번 연합 체육대회는 테러대첩의 대한민국 내 테러대상자 및 미군시설 등을 테러대상으로 지목 보도되는 등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 112타격대 역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인접사태에도 불구하고 밀폐감 느껴졌던 고창경찰서 112타격대원들과 함께 친목도모 및 화합의 장을 마련 경비직접체 직원간 정보공유 및 업무 벤치마킹 등 업무토론의 장으로 서로간 단단한 시간이 되었다.

강현신 경찰서장은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인접서와 친목도모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같이 군복무생활을 하는 의무경찰로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따뜻한 112타격대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시보건소, 재가 위암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29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방문보건센터 재가암 등록 환자 중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주시보건소 내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암 환자는 총 483명으로, 유방암 108명(22.4%), 위암 94명(19.5%), 대장/직장암 66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방문보건센터는 2011년부터 유방암 자조모임을 운영, 지난 3월에는 ‘눈꽃희’라는 유방암 자조모임을 갖기도 했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위암관리와 관련된 정보 교환과 암 극복의 의지를 갖게 만들어 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 위암자조모임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지난 5월 위암 대상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 요구도를 파악하고 수술 후 식이관리, 스트레스 관리, 원예치료, 운동교육, 건강캠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통해 위암 대상자들이 라이프 형성 및 소통의 기회를 갖고 웃음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식이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잡힌 식이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EG스위트벨리아파트주민, 정헌을 익산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익산시 마동 EG스위트벨리아파트(주민대표 박종배) 입주주민들이 29일 아파트를 준입도로 확장개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정헌을 익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오후 익산시장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마동 EG스위트벨리아 주민들과 김용균 지역구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입주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인 아파트 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시의 적극적인 현행행정으로 해결된 데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헌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시민들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안정·공정·열정의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을 펼쳐겠다”고 했다.

한편 EG스위트벨리아파트 앞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8억3,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2015년 3월에 착공되어 올 7월말 조기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김제백구파출소 석담리 앞돌수마을 담장 벽화 단장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가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밝은 김제 만들기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백구파출소 석담리 앞돌수마을 담장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농촌마을이 한층 밝아졌다.

이제는 백구파출소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중 앞돌수 마을이 인적이 드물고 야근에는 어둠까지 하여 지나다니기가 불안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

마침 이 마을에서 농촌마을 자원봉사 활동 중이던 원광대 미술학과 학생들은 백구 파출소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듣고 즉시 재능기부에 나서 어두운 골목길 50여미터 담장에 멋진 벽화를 선물했다.

김제경찰서는 최근 여성안심귀갓길 13개 노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김제시와 협조 가로수를 일제 정비하고, 보안등 조도개선을 위해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여성불안감 해소와 치안안정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경찰청, 위도·선유도 등 섬지역 교사관사 방범진단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29일 정승용 경무관(2부장)이 직접 부안군 위도면 도서 지역을 방문해 교사관사와 보건소의 방범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조치를 했다.

또한 전북경찰청 신일섭 생활안전과장 최성규 여성청소년과장은 2개조로 검경단을 편성, 군산지역의 선유도, 개야도, 무녀도 등 섬 지역의 범죄취약계층을 점검했다.

이날 방범진단은 도서지역 학교에서 여교사가 생활하고 있는 관사의 CCTV, 비상벨 및 방범창 설치여부 등 안전환경을 진단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방범진단을 토대로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등 방범시설을 보완하고 순찰 횟수도 증가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용 2부장은 “도서지역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서지역의 안전한 치안유지로 섬 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덕진구 사랑의 효자손 봉사대, 경로당 방문 이철 봉사활동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사랑의 효자손 전문봉사대’는 지난 28일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드리기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날 ‘덕진구 사랑의 효자손 전문봉사대’ 이철봉사자 10여명은 진북동 소재 무궁화 경로당을 찾아 이철요법 서비스와 함께 말벗을 해드려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신은식 봉사자는 “배운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한 웃음과 감사의 말씀으로 화답해주시니 봉사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 어르신들의 피로를 풀어드리는데 효자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축소녀와 박용자 과장은 “매주 어르신 건강자문이 효자손 전문봉사대가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줘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드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흔쾌히 기부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재 기자

무진장소방서, 119구조대원 헬리콥터 안전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9일 11시경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항공안전교육 및 사고사례 연찬회를 실시했다.

최근 헬기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항공안전교육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등 토론회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였다.

교육은 119구조대원의 헬기 요령 및 유도 요령법, 요구조사 구조돌절 착용법, 헬기 탑승시 주의사항, 항공안전사고 사례 발표등으로 진행 되었다.

조용주 서장은 “무진장소방서 관내에 산악지역이 많아 헬기 구조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산악 사고시 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진안군 용담호 환경대학 45명 수료식 개최

용담호 환경대학 수료식이 29일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환경대학 졸업생 및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되어 진안군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용담호 환경대학은 매주 수요일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45명의 환경대학생을 배출하여 올해까지 총 369명의 환경리더를 양성해냈다.

이번 환경대학은 환경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용담호 수질관리의 필요성 및 실천사항을 비롯한 수질 생태계 등 환경분야 전문교육, 야생 동·식물퇴치법, 저수지 수질관리, 용담호 비점오염원관리, 금강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환경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용담호 유입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질개선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에 진안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안군 역점사업인 쓰레기 3N0운동과 친환경농업인 우렁이 농법을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운전면허 합격했어요”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강생 19명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반’을 운영해 19명의 수강생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29일 센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자기능력개발의 일환으로 고창군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반 수강생들이 외국인 다문화정책과 교통법규 등 다양한 교통관련 교육을 받고 학과시험과 도로주행 등을 모두 통과해 19명이 운전면허를 얻었다.

강연화 센터장은 “운전면허 취득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운전면허는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5692)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근 전주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85-418	종양지사 010-988-6674	남영지사 632-3986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고창지사 568-6998
삼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임실지사 010-9842-2725
010-2333-4798	팔복지사 258-6884	진안지사 438-3054
서신지사 22-947	군산지사 445-6157	남원지사 632-0985
호지지사 010-6855-9955	익산지사 859-9923	정읍지사 539-3367
		장수지사 010-3822-8197
		무주지사 010-2300-423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